

2023년 08월 0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71편 2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26(통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소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31장 24~40절(구약p.789)

24.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수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26.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27.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28.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29.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30.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31.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32.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33.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34.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35.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36.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37. 내 걸음의 수호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38.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발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39.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40.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 말씀선포 / 죄짓지 않는 경건한 삶

모든 범죄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어거

스틴은 “마음이 똑바로 향해 있으면 행동도 또한 바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마음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결과 또한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어도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늘가는 밝은 길로 나오며,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욱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옴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었음을 증언합니다. 이는 그 마음에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옴의 고백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옴은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1. 세상의 것으로 우상 삼지 않았습니니다.

- 본문 24~28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라고 증언합니다. 옴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의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그는 자신이 많은 재물로 인해 기뻐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와 달을 보고 숭배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옴은 만일 자신이 그렇게 행한 적이 있었다면 재판에 회부 되어 마땅하고, 하나님을 속인 죄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자신은 결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옴은 재물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이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의 죄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사도바울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한 것과도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옴은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경배함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히 배제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옴처럼 우상숭배의 정의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으로 바라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합니까? 혹 내 마음은 자녀와 물질과 명예 등으로 가득하고 세상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는 그 마음을 지키고 더욱 믿음 가운데 굳건하여 부지불식간에라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원수를 저주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니다.

- 본문 29~30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옴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가 재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또한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생명을 저주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옴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선대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왔음을 의미합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45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사도바울도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며, 따뜻하게 해 주라고 명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21절입니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게 깨닫고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욕과 같이 인간의 이성과 본성을 초월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3.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 욕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진술합니다. 본문 31~34절입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욕은 자신의 장막 사람들을 우대했고, 나그네가 밖에서 자지 않도록 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합니다. 이는 악자들을 돌보고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음을 의미합니다. 욕은 만일 자신의 진술한 것과 달리 범죄 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고발당할 것이라고 당당히 밝힘으로 자신의 삶과 진술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믿음이 자라나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더욱 적극적인 삶의 열매를 맺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나무는 열매 맺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바람과 홍수에 견디는 것만으로도 대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 열매가 맺어야 함에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어 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격려해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 감으로 욕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계 21:8). 성도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21(통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 폐 회 / 주기도문